

YONHAP | 연합레페르  
**REPÈRE**

- ☞ 목차
- ☞ 과월호
- ☞ 정기구독신청
- ☞ 사진구입



Travel\_Taiwan

타이완 고속철도 여행  
**台灣高鐵 旅遊記**

■ 글·사진/장성배 기자·협찬/타이완관광진흥청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이베이 101 빌딩에서 오전에 쇼핑을 하고, 타이완 남단의 가오슝 치진 해변에서 바다가재로 점심을 먹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타이완 고속철도(台灣高鐵)다. 자동차나 일반 기차보다 2배 이상 빠르고, 항공기요금의 반값 정도로 저렴하다. 시간을 맞추기 위해 발에 불이 나게 튀지 않아도 되며 공항 날씨에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된다.



타이완의 면적은 경상도와 비슷하다. 3000m 높이의 험준한 산맥들이 섬의 등뼈를 이루고 있다. 올해 초 개통된 고속철도인 가오테(高鐵)는 타이완 서부를 단일 권역으로 묶는 전기를 마련했다.

가오테는 9월 중순 기준으로 8개 역을 운행한다. 타이베이, 반차오, 타오위안, 신주, 타이중, 자이, 타이난, 주오잉 역이다. 난강(南港), 미아오리(苗栗), 창후아(彰化), 윤린(雲林) 등 4개 역은 2010년 개통될 예정이다. 열차는 타이베이를 출발역으로 보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6분까지 총 45회 운행된다. 정차 역은 출발 시간에 따라 다른데, 반차오와 타이중 역에선 모든 열차가 멈추어 선다. 타이베이 역을 출발하는 가오테(최고 시속 300km)를 타고 영화 한 편을 보는 시간이면 중착역인 가오슝의 주오잉 역에 도착한다. 기존 4시간 이상 걸리던 구간을 2시간 이내에 주파한다. 요금은 항공기의 57%, 일반 열차의 150% 수준이다. 타이베이에서 가오슝까지 일반석 요금이 NT\$1490(약 4만5000원)이다.

가오테는 일본 고속철도인 신칸센(新幹線)의 차량과 시스템(신호, 통신, 운행관리, 여객안내)을 채택했다. 1964년 도쿄 올림픽 개막에 맞춰 첫선을 보인 신칸센이 거의 반세기를 돌아 타이완에 도달한 셈이다. 차량은 신칸센 700, 500 시리즈를 기본 모델로 삼았다. 유선형의 날렵한 외형을 흰색과 황색, 녹색을 이용해 디자인했다. 타이완의 덥고 습한 날씨를 고려해 차내 환기 시스템 기능을 대폭 향상시켰다고 한다.

가오테의 기관차와 객차 편성은 총 12량으로 전체 길이는 304m이다. 맨 앞 칸에서 마지막 칸까지, 빠른 걸음으로 간다 해도 5분은 족히 걸리는 길이다. 객차 중 11량(1~5, 7~12호차)은 일반석이고, 1량(6호차)은 특석이다. 통로 양옆으로 일반석은 1열에 5개(2 by 3), 특석은 1열에 4개(2 by 2) 좌석이 배열됐다. 승객 정원은 989명. 한국 고속철도(KTX)와 달리 역방향 좌석이 없어 창밖 풍경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다. 좌석은 중착역에 도착하면 앞뒤 방향을 모두 바꿔 운행된다.

약 122억 달러를 들여 7년 공사 끝에 완공된 가오테의 최대 장점은 안전성이다. 모델이 된 신칸센이 전 세계 고속열차 중 가장 안전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칸센은 운행을 시작한 이래로 탈선 사고가 단 1회뿐이었다. 2004년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탈선사고였는데, 승객 중 사상자는 전무했다. 가오테는 타이완의 지형과 환경을 고려해 신칸센보다 업그레이드된 안전시스템을 갖추었다. 어떠한 사고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3단계 백업체계를 작동하고 있다.

뛰어난 승차감도 가오테의 매력이다. 시속 300km는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속도와 맞먹는 수준이다. 진동과 소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가오테는 선로 위를 미끄러지듯 주행해 터널을 지날 때도 덜컹거림이 몸에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간이테이블에 음료수를 올려놓아도 흔들림이 거의 없다. 또한 동양인 체형에 맞춰 설계된 좌석은 넓고 안락하다. 좌석의 앞뒤 간격이 일반실,

특실 구분 없이 항공기 비즈니스클래스가 연상될 만큼 충분한 공간을 두고 있다. 총 66개의 특실 좌석은 일반석보다 한 뼘 가량 폭이 더 넓다.

역 대부분이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어 다소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일반 열차와 전철(MRT), 버스와 택시를 이용한 환승체계를 잘 갖추고 있어 큰 불편함은 없다. 타오위안, 신주, 타이중, 자이, 타이난, 주오잉 역에선 인터넷(www.fast-link.com.tw)이나 전화(07-412-8168)로 예약을 하면 픽업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개별여행의 천국다운 면모를 보여준다.



## 타이베이

타이베이 역은 기존 일반 철도역을 고속철도 역으로 활용했다. 타이베이 시내 서쪽을 흘러나가는 단수이허(淡水河) 부근에 위치한다. '좁음의 거리'로 불리는 시먼팅(西門町)에서도 가깝다. 타이베이 전역을 거미줄처럼 연결한 전철(MRT) 환승이 가능하다.

타이베이 역에서 가장 가까운 명소는 타이완 민주기념관(옛 중정기념당)이다. 타이완의 현대사를 대변하는 곳으로 대륙의 중화사상을 타이완에 이식한 장제스(蔣介石) 총통의 기념관이다. 순백의 대리석과 에메랄드빛 팔각 기와로 장식된 중국식 피라미드. 그의 89년 생애에서 연유했다는 89계단을 오르면 품이 넓고 길이가 발목까지 내려오는 창파오(長袍)를 입은 노인의 동상이 나타난다. 북벌과 국공합작, 내전과 대장정 등 중국 현대사의 격랑을 야기하고 헤쳐 나온 인물의 일대기가 사진과 유물로 전시돼 있다.

민주기념관 앞 신의로(信義路)를 타고 오면 타이베이101빌딩(台北101大樓)이 나타난다. 높이가 508m인 세계 최고층 건물이다. 101은 101층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유일하다'는 의미로도 통한다. 대나무 마디를 연상시키는 설계와 행운을 뜻하는 열쇠 장식이 인상적이다. 전망대는 89층(382m)에 위치한다. 지하1층부터 5층까지는 식당가와 쇼핑센터가 입주해 있다.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세계 10대 레스토랑의 하나인 딘타이펑(鼎泰豐, www.dintaifung.com.tw)은 타이베이에 3곳이 있는데, 본점이 민주기념관과 101빌딩 사이에 위치한다. 육즙이 일품인 샤오롱바오(小籠包)를 비롯한 갖가지 딤섬이 미각을 유혹한다.

시간 여유가 주어진다면 전철(MRT)이나 버스를 타고 시 외곽으로 나간다. 고궁박물관(故宮博物院, www.npm.go.tw)에선 갑골문자가 새겨진 은허의 거북 등껍질부터 황실의 후궁들이 밤을 지새우며 매만지던 상아 공예품까지, 장제스 총통이 타이완 해협을 건너오며 가지고 온 수천 상자의 국보급 문화재를 만날 수 있다. 고궁박물관을 상징하는 옥(玉) 공예품인 취옥백채(翠玉白菜)는 배추이파리 위에 메뚜기가 앉아 있는 모습을 정교하게 구현해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중 개방한다.

지난 7월 오픈한 마오콩 곤돌라(貓空纜車, www.taipeitravel.net/maokong)는 타이베이 시민들의 새로운 유희로 떠올랐는데 한번쯤 체험해볼 만하다. 약 20분간 공중부양해 발아래 아열대숲과 멀리 타이베이 도심 풍경을 감상한다.

[tip] 타이완의 관문인 중정국제공항은 타오위안(桃園)에 위치한다. 항공기에서 내려 곧바로 타이중이나 가오슝 행 고속열차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굳이 타이베이 역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다. 타오위안 역에도 고속철이 하루 23회 정차한다.



## 타이중

타이중 고속철도 역은 타이중 남서쪽 위리(烏日)에 위치한다. 전철(MRT)로 타이중 시내와 연결된다. 지상 3층으로 이루어진 역사는 비상을 준비하는 학의 날개마냥 처마가 길게 뻗어나간다. 거대한 통유리를 설치한 넓고 웅장한 로비가 인상적이다.

나이중은 나이한 죽투과 금투를 짓는 기념포시나. 기후가 쾌적하고 신선한 열력이 금시는 온화고 시다. 국립타이완미술관이 위치하며 후수이안(湖水岸), 리상구어(理想國) 등 시구획에 의해 아기자기하게 조성된 예술거리가 많다.

국립타이완미술관(www.ntmofa.gov.tw)은 9·21 대지진 이후 보수를 거쳐 2004년 재개장했다. 총 24개의 전시실을 갖추고 카페와 레스토랑, 기념품점도 운영된다. 타이완의 미술사를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으며, 비주얼 아트 등 타이완 현대미술 기획전도 수시로 개최한다. 입장료는 없으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국립미술관 북쪽에 자리한 징밍1가(精明一街)는 다양한 풍경의 카페와 레스토랑, 갤러리와 명품 숭이 거리 양편에 길게 늘어서 있다. 특히, 카페와 레스토랑은 제각기 고유한 역사와 메뉴를 자랑한다. 쩐주나이차(珍珠女乃茶)로 불리는 버블티를 1983년 세계 최초로 선보인 춘수이당(春水堂)도 거리 입구에 터줏대감처럼 위치해 있다. 밀크티에 쫄깃한 타피오카(Tapioca) 알갱이를 넣은 버블티 한 잔을 시켜놓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간혹, 거리에서 음악회나 퍼포먼스가 열리는 날이면 징밍1가는 노천 공연장으로 변모한다.

평지아(逢甲) 야시장은 타이중 여행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곳이다. 타이완 서부를 2박3일, 3박4일 일정으로 여행하면 대부분 하룻밤은 타이중에서 머무르는데, 야시장 탐방은 필수 코스다. 타이중 시내 북동부 평지아 대학 옆에 위치한 야시장은 식도락의 천국, 타이완의 축소판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음식 노점이 즐비하게 널려 있다. 아마도 단위면적당 노점 숫자가 세계 최고가 아닐까 싶다. 노점에서 값싸고 먹기 편한 음식이 주종을 이룬다. 대하(大蝦) 즉석구이, 과일을 먹기 좋게 잘라 설탕옷을 입힌 빙탕호로(冰糖葫蘆), 갖가지 어묵과 야채에 육수를 부어 주는 포장마차까지 종류별로 모두 맛보려면 최소 1주일은 걸릴 듯하다.

[tip] 르웨탄(日月潭)은 타이중 시내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지만 놓치기 아까운 곳이다. 해발 870m의 산정호수로 둘레가 24km, 면적이 900ha에 이른다. 시간, 장소, 날씨에 따라 색깔과 모습이 바뀌는데, 장제스 총통이 별장을 지었을 정도로 풍경이 아름답다. 현재 국가풍경구로 지정돼 있다. 호수 주변을 거닐거나 자전거 하이킹을 할 수 있지만, 진면목을 보려면 유람선을 타는 것이 좋다.



## 타이난

타이난 고속철도 역은 타이난 도심 남쪽 구아이렌(歸仁)에 위치한다. 지상 3층 건물로 타이난 북부의 자이 역과 쌍둥이 건물로 설계됐다. 타이난의 전원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광장과 연꽃이 만발한 인공호수가 조성돼 있다. 타이난 도심까지 버스, 택시로 연결된다.

타이난은 한국의 경주처럼 타이완을 대표하는 고도(古都)이다. 중국 대륙에서 타이완으로 이주한 한족(漢族)들이 처음 정착한 곳이다. 말레이-폴리네시아 계통의 토착 원주민 해양문화와 중국 대륙의 한족 문화가 뒤섞여 도시 전체가 박물관을 방불케 한다.

안핑구빠오(安平古堡)는 타이난 유적 1번지에 해당되는 곳이다. 타이난 여행객들이 순례지처럼 찾아온다. 타이난 운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서쪽 안핑항(安平港) 언덕에 위치해 있다. 17세기 초 타이난을 점령한 네덜란드인들이 붉은 벽돌로 쌓은 요새다. 1661년 반청복명의 기치를 내걸고 안핑에 상륙한 정성공(鄭成功)이 네덜란드 세력을 축출하면서 타이난 한족의 행정 중심지가 되었다. 물론, 지금은 주변이 대부분 매립돼 망루에 올라서도 바다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녹슬어 가는 대포, 수염처럼 가지를 길게 늘어뜨린 수백 년 수령의 반얀나무(榕樹)만이 지나간 세월을 반추하고 있다. 저녁 무렵 들른다면 망루에서 노을을 감상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타이난에는 안핑구빠오 이외에도 츠칸로우(赤嵌樓), 이차이진청(億載金城) 등 청나라 시대 유적이 즐비하다. 타이완 역사에 남다른 관심이 있다면 돌아볼 만하다. 하지만 많은 시간을 할애할 만큼 뛰어난 건축미와 특이한 유물을 보여주진 않는다.

[tip] 일출과 운해, 회(檜)나무로 잘 알려진 아리산(阿里山)은 자이 고속철도 역 동쪽에 위치한다. 국가풍경구로 해발 3000m 이상의 준령과 울창한 골짜기가 굽이굽이 산맥을 이룬다. 자이 시내에서 출발하는 삼림열차를 타면 당일 코스나 1박2일 일정으로 다녀올 수 있다. 해발 30m에서 출발한 열차는 70여km, 3시간 30분을 달려 아리산 역(2247m)에 오른다. 버스를 이용해 아리산을 돌아보는 방법도 있다. 편치후(奮起湖)를 비롯한 삼림열차의 중간 역에 내려 차를 마시고 아리산 특산품을 고를 수 있다. 산비탈을 가득 메운 뺑랑나무와 차밭을 감상하는 것도 재미다.



## 가오슝

주오잉 고속철도 역은 가오슝 시내 북부 주오잉 구(區)에 위치한다. 고속철도와 일반열차, 전철(MRT)이 교차한다. 해안도시 가오슝의 이미지를 살려 역사 지붕을 넘실거리는 파도 모양으로 형상화했다.

가오슝은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컨테이너 물류의 허브(Hub)로 꼽힌다. 도심 곳곳에 죽순처럼 솟아난 마천루가 인상적인 무역항이다. 아열대 기호식품인 빵랑을 질경질경 씹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가오슝 여행은 대부분 치진(旗津)에서 출발한다. 가오슝 앞바다에 옛가락처럼 길게 드리워진 섬이다. 검은 모래가 뒤덮인 긴 해변은 산책과 하이킹을 하기에 좋다. 치진 해안공원과 해산물 거리를 둘러보고 페리 선착장으로 향하면 섬 북단과 가오슝 시내를 연결하는 투륜(渡輪)이 기다린다. 투륜은 10여 분 간격으로 오가는데, 1층에는 좌석이 없다. 오토바이 승객을 위해 텅 비워 놓았다. 출퇴근 무렵이면 수십 대의 오토바이 행렬이 승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전거가 베이징을 상징하듯 오토바이는 타이완의 고유한 풍경 중 하나다. 배기량 50cc 안팎의 스쿠터가 주로 이용된다. 일몰 후 오토바이 승객들이 헤드라이트를 켜고 일시에 부두를 빠져나오는 광경이 볼만하다.

가오슝에도 내로라하는 야시장이 있다. 리우허(六舍) 야시장인데, 타이중 평지야 야시장처럼 특이한 먹을거리로 명성이 자자하다.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왁자지껄한 리우허에서 꼭 시식해야 할 것은 문어다리 튀김과 아이스크림 튀김이다. 어른 팔뚝보다 더 굵고 긴 문어다리 튀김을 먹은 후 걸은 뜨겁고 속은 차가운 아이스크림 튀김으로 마무리한다.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면 초우도우푸(臭豆腐)에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다. 두부를 발효시켜 기름에 튀긴 것으로 타이완 사람들이 애용하는 간식이다. 역한 냄새가 많이 나면 날수록 몸에 좋다고 한다.

아이허(愛河)는 가오슝 여행의 대미를 장식한다. 가오슝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며 흐르는 운하로 유람선을 타고 감상하는 야경이 일품이다. 매일 밤 가오슝 콘서트홀 앞 강변의 선착장에서 가족과 연인, 관광객을 태우고 영롱한 조명으로 채색된 교각 아래를 지난다.

**[tip]** 주오잉 역 인근에는 도교, 불교, 유교 등 타이완 사람들의 종교관을 엿볼 수 있는 리엔츠탄(蓮池潭) 풍경구가 자리한다. 호수 주변을 거닐면 중국 전래소설 봉신연의(封神演義)에 등장하는 갖가지 신들의 조각상을 만나게 된다.

[▲ top](#)